

# 의정부 아이들 케냐 學校건립기금 모금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콜센터 개소

## 아프리카 케냐 로로키 지역에 초등학교 짓기로



의정부시 호동초등학교에서는 지난 2일 데니스 노엘 오두야 아워리(50) 주한 케냐대사 등이 참석, 케냐의 로로키를 지원한 의정부 아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정부시 아이들이 동전을 모아 아프리카 케냐에 교육기관을 설립해 회계가 되고 있다. 학생들의 이같은 모금운동은 지난 2003년 12월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했던 의정부교육청 김윤식 교

육장이 가난에 허덕이는 케냐 어린이들의 교육현실을 본 뒤 이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케냐의 열악한 교육환경 등을 선생님들로부터 전해들은 28개 초·중학생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평소 용돈을 아껴 모았거나 집안에 방치된 동전을 '사랑의 뽕' 저금통에 담아 모금, 8천500여만 원을 민간구호단체인 월드비전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지난 2월 케냐 로로키 지역에 80명의 원생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 신축비용 및 의료지원비 등으로 전해졌으며 유치원은 빠르면 올 연말 개원할 예정이다.

의정부교육청은 또 토담으로 지어져 곳곳에 균열이 심하고 교육기자재가 열악한 로로키 지역의 한 초등학교 현대화 사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2차 모금운동에 나서 지난 2일 오전 의정부시 호동초 호동초

등학교에서는 데니스 노엘 오두야 아워리(50) 주한 케냐대사가 의정부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일일 교사로 나서 케냐의 역사, 경제, 문화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푼 두푼 정성껏 모은 돈을 보내 케냐의 빈곤지역인 로로키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짓게 한 의정부지역 어린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윤식 의정부 교육장은 "2003년 케냐를 방문했을 때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작은 힘을 모아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동전 모으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의정부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사들과 호동초등학교 교사 30명은 케냐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콜센터 개소

일주일 전 080-504-1234로 예약한 후 이용

의정부시(시장 김문원)는 지난 달 25일 오후 3시 30분 의정부시장 애인복지관 주차장에서 장애인, 유관기관 단체장 및 관계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간단한 현판제막식 후 첫 시승식에 오른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비장애인으로서의 체험하기 어려운 경험을 선사해줘서 고맙다"며 콜센터가 앞으로 의정부시 중증장애인들에게 손과 발이 돼 줄 선물이 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콜센터에서 운영할 차량은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받은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으로서 기존의 리프트 장착차량과는 달리 휠체어장애인이 오르고 내릴 때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도록 차체를 높게 만들어 중증장애인들의 교통편의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배려까지 갖춘 차량이다. 콜센터는 의정부시 등록장애인 중 1~3급 중증장애인이 일주일 전



지난달 25일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 주차장에서 김문원 의정부시장(왼쪽)이 현판식 후 첫 시승식을 하고 있다.

전화(080-504-1234)로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월~금 5일간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 관내 10km 이내 근교까지만 운행하며 탑승료는 무료로 운행할 계획이다. 시는 '비장애인'의 세상 속으로 첫발을 내딛은 콜센터가 처음 가진 방향과 위상의 흔들림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잇는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끊임없는 자기연찬 꼭 필요한 사람 되어야”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6월중 월례조회에서 강조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1일 오전 별관 대강당에서 취임 후 처음 가진 6월중 월례직인조회 훈사를 통해 새로 써나가는 '희망 경기교육'의 역사가 희망과 보람으로 가득찬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끊임 없는 자기연찬으로 경기교육가족이 꼭 필요한 사람(공무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광주종합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제41년차 경기도영농학생 전진대회'행사에서 김 교육감은 대회 치사를 통해 세계화, 개방화에 따라 과학적인 분석력을 갖춘 우수

영농인 만이 우리나라 농촌 및 농업을 지킬 수 있다며, 영농학생이 바로 이 역할을 담당할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이번 대회에 참석한 도내 농업계고등학교 교직원들에게 우수 영농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농업 시설, 설비의 첨단화 교육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광주종합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제41년차 경기도영농학생전진대회'행사에서 김 교육감은 대회 치사를 통해 세계화, 개방화에 따라 과학적인 분석력을 갖춘 우수 영농인 만이 우리나라 농촌 및 농업을 지킬 수 있다며, 영농학생이 바로 이 역할을 담당할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 제50회 현충일 추념식

의정부시, 호국영령들의 넋 기려

의정부시(시장 김문원)는 지난 6일 오전10시 의정부시 자곡동 현충탑광장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제50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은 김문원 의정부시장과 각급 기관장, 보훈 단체장을 비롯한 전물군경유족, 일반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해 나라위해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었다. 이날 추념식은 정각 10시 전국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의 묵념을 올리고,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낭송, 현충일의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문원 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위한 삼가 명복을 기원하고, 40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길만이 호국영령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더욱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시는 추념식이 끝나고 의정부부 훈지정과 경인일보 공동주최 제7회 경기도학생백일장을 개최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제50회 현충일과 6월 호국 보훈의 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엄마와 함께하는 자연체험캠프 운영

의정부시(시장 김문원)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엄마와 함께하는 자연체험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에는 관내 모자가정 25세대 66명이 참가했으며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사 만해 마을에서 실시됐다. 첫날 신뢰와 책임(함께하는 세상)과 상호존중과 협력(낮아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

로 스트레스 박살내기, 명랑운동회 등 체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둘째날은 설악케이블카를 이용한 권금성 등반, 동해바다 구경 등으로 가족간의 마음을 열고 상호 이해를 통한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위하여 엄마와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일자리 창출 '소자본 창업교육'

의정부·포천·양주권 7월4일부터 5일간

경기도(제2청사)는 지난해 3개권역 400여명을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교육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에도 4개권역(의정부권 구리권 고양권 동두천권) 60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자본 창업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경기침체로 중 장년층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재취업 애로계층 및 업종전환 전직 희망자들의 창업을 통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창업관련 기본지식 및 창업 희망분야별 전문지식 교육을 통하여 창업 실패율을 최소화해 도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무료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구리권(구리·남양주·가평)은 오는 27일부터 7월1일까지 5

일간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의정부권(의정부·포천·양주)은 7월4일부터 7월8일까지 5일간 의정부시 호원동에 소재한 신대대학에서 권역별로 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북부지소)에 위탁하여 창업절차 등 기본교육, 해외창업 정보, 마케팅기법, 농업창업, 소호창업 등 업종별 전문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9월에 고양권(고양 파주), 동두천권(동두천 연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또 관계자에 따르면 "소자본 창업교육으로 도내 실직자들이 실직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골수기증으로 선행 펼친 최경근 순경



최경근 순경 먼저 도와주는 '의리의 품'로 통하는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의정부 경찰서 금오지구대 최경근(남·39) 순경은 평소 불의의 참변을 보면 참을 수 없는 사람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제일 먼저 도와주는 '의리의 품'로 통하는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최 순경은 남의 고통을 덜어 줄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죽어 가는 환자나 수술환자들을 위해 5차례의 헌혈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달 4일 대한조혈모세포(회장 김상인)의 주선으로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골수(수혈자 3세, 男兒)를 이식할 사람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흔쾌히 이를 승낙, 지난 2일 이식수술을 했다. 최 순경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의무를 다함은 물론 본인의 작은 희생으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정보도서관 5월 가정의 달 행사成了

의정부 정보도서관(관장 고진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달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다양한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한국의 잊혀진 전통문화를 되살린 그림책 '똥떡'과 '쌈뽕' 원화전 시회를 시작으로, 어린이 환경 창작뮤지컬 '똥떡 6형제',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부르는 '동요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도서관에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모발의 혁신 퍼스 코리아(주)

의정부점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드립니다”

## PERSON KOREA

취침, 운동, 사우나 OK!!

### 퍼스 심는가발맞춤점

대표: 1544-5868 본사: (02)3143-6474-6

- 고객만을 위한 1:1 상담, 시술
- 양질 100% 인모 심는 가발
- 다양한 신제품
- 오랜 경력의 스타일링
- 전국지점망 A/S
- 타사제품 관리, 수리

전국 대표: 1544-5868 / 문의: 031) 848-6476 / 지점장: 김나영 www.personhair.co.kr